

금요 수필

늦가을의 심연

아침차녀으로 스치는 바람은 이제 서늘함을 넘어 살갗을 파고든다. 가을은 어느새 끝자락에 서 있다. 늦가을의 그림자는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고, 희미한 햇살 한 줄기조차 나타나지 않듯, 살갗을 같은 가지에 적혀 화없이 흔들린다. 거무스름한 바깥은 햇살 사이에서 길을 잃고, 화색빛 조각구름은 하늘을 무심히 스쳐 지나간다. 빛은 적적 세기를 잃고, 자연은 천천히 제 색을 가늠는다.

저를 돌고 도신 한복판을 달리다 보면, 떨어진 은행잎들이 바람에 스치며 허공으로 날린다. 마치 마지막 춤을 추듯 금빛 잎사귀는 바람을 타고 부유하다 사라진다. 늦가을의 도시는 그렇게 짙은 황금빛 비를 흘리며, 계절이 퇴장하기 전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나는 그 기묘한 풍경 앞에서 잠시 속도를 늦추고, 사그라져가는 계절이 들려주는 은밀한 자백의 언어에 귀 기울인다.

아침과 저녁의 빛은 여전히 신비롭지만 한층 누그러져, 마치 저 무는 생이 마지막 숨을 고르는 듯하다. 하늘은 높고 청명한 듯 쓸쓸하며, 길가의 단풍 나무에는 소리가 사라져 고요만이 가득하다. 세상의 독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겨울은 튼튼 나뭇가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이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그 침묵은 생의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진다.

가을은 그리움의 계절이지만,



신 영 구
시인 · 수필가

늦가을의 그리움은 더욱 깊고 차분하다. 그것은 누구가를 애대기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다. 더는 날을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소녀 드는 조용한 슬픔이다. 그리움은 가슴속 상처가 봉합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리움은 감'일'과도 같다. 늦가을의 그리움은 그 귀퉁이저 차갑게 식어버린 절망에 가깝다.

늦가을은 이별의 계절이기도 하다. 나뭇잎들은 서늘한 바람에 준비를 하고 어떤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 고독을 음모로 견뎌나. 봄이면 새싹이 돋겠지만, 올해 떨어져 나간 잎과 가지는 다시 서로를 볼 수 없다. 인연의 이별 또한 이렇게 텅텅이 사라져간다.

또한 이 계절은 사색을 부른다. 늦가을의 사유는 더욱 깊고 묵직하다. 생이 서서히 쇠락하는 모습 을 바라보며 우리는 삶과 사랑, 그리고 결국 끝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 다시 자문한다. 그래서 가을은 철학의 계절이며, 생각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내면을 마주한다.

늦가을은 공허하다. 고독은 이 계절의 필연이다. 그 공허 속에서 마음 한 귀퉁이 매일 조금씩 짝어 나가는 듯하지만, 나는 고독을 피하지 않는다. 이미 그 쓸쓸함에 익숙해진 탓에 오히려 그 심연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싶다.

해가 짧아지고 일조량이 줄어들어는 이때, 나는 해마다 찾아오는 우울과 다시 마주한다. 세로토닌이 줄어들어 마음이 무거워지는 듯도 있었지만, 어쩌면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자리 잡은 외로움의 유전자 때문일지도 모른다.

가을을 타는 것은 남자라는 속신이 있지만, 늦가을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우울은 누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떠오르는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늦가을의 난자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견뎌나. 각색 코트에 스민 냉기는 얼음보다 더 깊은 쓸쓸함을 품고 벤치에 앉아 눈을 감으면 나뭇잎 바람에 실려 날라간다 이내 발끝

에 고요히 쉼인다. 바람도 내려 그 낙엽이 씻기라도 하던, 내 마음도 함께 젖어 더욱 무겁게 가라앉을 것이다.

이 계절만 되면 이유 없이 마음이 누그러지고 때로는 눈물이 차오른다. 세상과 나 사이에 바람 한 점 없는 정적이 깔리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데도, 어대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이 스민다.

어느 늦가을 날, 거의 다 떨어진 나뭇잎이 흔들리는 길을 걸다 분득 눈물이 들었다. 남아 있는 잎이 몇 장 되지 않는 나무는 더욱 적막했고, 반딧불 스치는 낙엽 소리는 공허함을 한층 증폭시켰다. 늦가을은 정말 눈물의 계절인가.

늦가을 밤의 어둠이 짙게 깔린다. 돌은 천군마군 무겁고 마음은 심연의 끝자락에서 얼어붙어 있다. 그 순간, 가을이 나에게 속삭인다.

“그래도 괜찮아, 생각은 자유니까.”

“신영구 수필가는 1995년 월간 '문예시조'와 1997년 월간 '수필과비평'으로 등단하여 시·수필·칼럼을 쓰고 있다. 수필집으로 '그리움처럼 고독이 오는 날'의 1권, 에세이 집으로 '삶에게 묻다', 첫 시집으로 '바람도 꽃피는 계절이 있다', 칼럼집으로 '침묵은 누구의 편인가'와 4권이 있다. 현재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과 순수필동인 회장을 맡고 있다.

사설

젠슨황 하이닉스·삼성 샘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첨단 '블랙웰' 칩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만 TSMC에 웨이퍼를 추가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CEO는 타이완에서 개최된 TSMC의 연례 체육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신 아키텍처 '블랙웰'을 적용한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해 “매우 강력 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는 GPU를 생산하지만, 중앙처리 장치(CPU)·네트워크 장비·스위치도 만들기 때문에 블랙웰과 관련한 칩이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SMC에서 구매하는 웨이퍼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TSMC가 웨이퍼 지원에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실리콘 원관인 웨이퍼는 반도체 칩의 기반 역할을 하는 핵심 원재료이다. 황 CEO는 또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에서 최첨단 칩 샘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해 열려하고 있는나는 질문에 “사업의 성장 시기에는 ‘다른 것들’의 공급 부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세 곳은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엄청나게 확충했다”고 답했다.

다만 메모리 가격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그들의 결정”이라고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중국으로의 엔비디아 제품 판매는 올해 초부터 이어지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사실상 중단됐다.

관심을 모았던 중국 수출용 블랙웰 제품에 대해서도 최근 미국 정부가 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수 부인 별세

소설가 故 이외수씨의 부인 전영자씨가 7일 강원도 춘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2세다.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이외수씨가 춘천에서 다방 DJ로 생계를 꾸릴 때 손님으로 갔다가 이씨의 구혼을 받아들여 1976년 11월 결혼했다.

솔하에 두 아들을 두었다. 2019년 결혼 44년 만에 ‘출혼’을 선언해 화제가 됐지만, 2020년 이외수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는 다시 결으로 돌아와 마지막까지 병상을 지키며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외수는 2022년 4월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아내 전영자 여사 역시 남편의 곁으로 평온히 돌아갔다.

고인은 지난 2006년 EBS TV ‘다큐 여자’에서 남편이 책상 앞에서 원고지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쌀을 발라러 다녀야

했고 현실과 동떨어져 사는 것 같은 남편이 삶에서 몇 차례나 보따리를 싸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글을 쓰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남편의 천직이라면 작가 이외수의 아내로 살아가야 하는 것 역시 나의 천직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회고했다.

당시 여성잡지 ‘우먼센스’ 인터뷰에서 “(내) 건강이 나빠지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아 출혼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3월 이씨가 쓰러지자 출혼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남편 곁을 지키며 병간호를 했다. 2022년 이외수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춘천에서 혼자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이한열씨는 “어머니는 평생의 반려자가 떠난 뒤 많이 외로워하셨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최근 보이스피싱(스미싱) 수법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접근한 뒤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는 ‘대출 상환형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최근 몇 년 사이 ‘택배 배송’, ‘카드 발송’ 사칭 등이 등장하며 수법이 다양화되고 정교화된 것이다. 이러한 사칭 범죄(스미싱) 수법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카드 배송’ 사칭 수법이다. 피싱범은 우체국이나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여 ‘카드가 배송될 예정이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는 해당 연락처를 통해 연락하거나 링크를 접속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원격

“카드, 택배 배송 사칭 스미싱에 주의하세요”

제어 및 악성 앱을 설치된다. 이후 경찰·금융원을 사칭한 정교한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자금 이체를 유도한다.

“택배 회사 사칭 수법도 있다. ‘택배 배송지연, 배송지확인’ 등과 같은 내용을 보내고 문자 확인을 위하여 링크를 누르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후 휴대폰 소액결제 하는 수법이다. 경찰청 민원24를 사칭하여 허위의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만들어 URL 고지서를 열람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또한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법에 속아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한 뒤 해당 카드사, 택배 회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전화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문자 메시지 및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금융원·경찰 등 국가기관은 절대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니 사기범에 속아 금전을 이체

한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경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속게 만들도록 설계된 범죄라고 한다. 택배 문자나 카드 배송 알림처럼 그럴 듯한 일상 메시지에서 속에서 피해자가 속기 쉽기 때문에 유혹을 포착하기 더 어렵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조금만 의심하고, 한번만 확인하면 막을 수 있는 범죄기도 하다. 일상생활에서 의심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가져 피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길 간절히 바란다.

최대인고청경찰서모양지구대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